

 경상남도 GYEONGNAM	인도네시아 언론 보도 (2021 년 6 월 18 일, 자카르타경제신문)	자카르타사무소
		2021 . 6 . 18 (금)

□ 아이르랑가 경제조정 장관: 아시아 태평양 경기 회복의 핵심은 구조개혁

아이르랑가 하르따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 장관은 코로나 19 대유행은 인도네시아가 경제구조적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구조개혁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더 지능적이고, 더 생산적이며, 정의로운 경제 발전 로드맵을 통해 지속적으로 포괄적인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16 일 제 3 차 APEC 구조개혁장관급회의(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Structural Reform Ministerial Meeting, SRMM) 가상포럼에서 말했다.

아이르랑가 경제조정 장관은 이 회의에서 APEC 장관들과 협력하여 코로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을 지원할 포괄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춘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APEC 의 구조개혁 합의 안건에는 관료의 효율성 향상, 노력의 용이성, 법적 일관성 향상, 품질 향상 및 기타 관련 사항으로 그동안 고비용 경제의 장애 요인 중 하나인 무역과 투자에서 단일 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것을 포함하였다.

아이르랑가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경제개발에 우선시하는 부문은 수력발전, 태양광 패널, 지열 및 30%까지 사용을 허용한 바이오디젤(B30)과 같은 환경부문이라면서 정부는 2030 년까지 탄소 가스 배출량을 30% 줄이기로 합의한 국가 개발 계획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으며, 2025 년까지 생활폐기물과 바다의 플라스틱폐기물을 70% 감축하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술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킬, 업스킬(up-skilling), 리스킬(re-skilling) 등으로 구성된 실무 프로그램 채택하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창조하고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중앙은행 총재, 2021 년 디지털 금융 성장 확산

중앙은행(BI)은 코로나 19 유행 가운데 디지털 경제와 금융 거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금융이 인도네시아 경제회복을 견인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BI 총재 페리 와르지요(Perry Warjiyo)는 코로나 19 대유행 기간동안 전자상거래, 전자화폐, 디지털뱅킹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1 년에도 계속 증가하여 전자상거래는 연 39.1%, 전자화폐는 연 32.2%, 디지털뱅킹은 연 21.5%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현상은 경제와 금융을 포함 국가경제회복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15 일 금융감독청(Badan Pemeriksaan Keuangan, BPK)에서 개최한 코로나 19 유행과 하반기 정부정책, 기회, 도전과 리더십이라는 가상회의에서 밝혔다.

덧붙여 페리 총재는 이러한 2021 년 디지털 경제와 금융의 성장은 중소기업(UMKM)을 육성하는 잠재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나, 사이버 공격과 같은 디지털 세계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잘 통제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페리 총재는 사이버 공격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경제회복의 위험으로 통화 안정과 자금 조달에 따른 글로벌 신용위험이 있는데 이는 중앙은행과 금융시스템 안정위원회(Komite Stabilitas Sistem Keuangan, KSSK)에서 잘 감시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최고 소득자의 소득세를 35%로 인상

스리 물리아니 인드라와티 재무장관은 정부가 연간 50 억 루피아(34 만 8,000 달러) 이상의 개인소득에 대한 세율을 기존 30%에서 35%로 인상하는 새로운 소득세법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의회 금융위원회 XI 와의 회동에서 인도네시아 내에서 극소수만 해당 그룹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나이트 프랭크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난해 인도네시아에서 순자산이 100 만 달러 이상인 사람은 21,430 명, 즉 인도네시아 인구 10 만명 중 8 명이 백만장자이라고 추정했다.

이 컨설팅 회사는 인도네시아의 순자산가치가 100 만 달러 이상인 개인들이 2025 년에는 두 배인 45,000 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래도 인구 10 만 명 중 228 명의 백만장자가 있는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도네시아의 백만장자 비율은 낮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 납세자들에게 부과되는 소득세율은 5 천만 루피아까지 소득에 대해 5%이고, 5 천만 루피아 초과 2 억 5 천만 루피아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15%를 내야 하고, 2 억 5 천만 루피아 초과 5 억 루피아까지 소득은 25%의 세금이 부과되며, 인도네시아의 최고 소득자인 5 억 루피아 초과 연 소득에 대해서는 30%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 조코위, 제 2 차 조세사면 프로그램 의회 승인 요구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세수를 늘리려는 정부의 시도의 일환으로 2009 년 일반조항 및 조세절차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5 년 만에 두 번째인 또 다른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의회에 통보했다고 아이를랑가 하르따르도 경제조정장관은 말했다.

이 개정안에는 부가가치세,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율 인하, 사치품 부가가치세, 소비세, 탄소세 등과 세금 사면과 관련된 항목들이 포함될 것이며, 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아이를랑가는 기자들에게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들어 3 월까지 228 조원의 세금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 감소했다. 이는 올해 정부의 세수 목표인 1,229 조 6 천억 원의 19%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코로나 19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규제로 경제가 위축되면서 목표치인 1,198 조 8 천억 원의 89.3%에 불과한 1,070 조 원의 세수를 거둬들였다.

조코위는 2016 년과 2017 년 첫 조세사면 프로그램을 열어 탈세자들이 청렴 결백하고 밀린 세금과 은닉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진신고를 통하여 훨씬 적은 금액만 내면 됐다.

재경부 자료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4,813 조 4 천억 루피아의 과거 은닉 재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46 조 루피아의 해외 자산을 인도네시아내로 송환을 장려하였다.

또 국세청이 2016 년과 2017 년 총 135 조 루피아의 세수를 올렸지만, 2 년간 517 조 루피아의 세수 목표에는 역부족이었다.

해외 금융과 은행 업무를 총괄하는 의회 11 위원회 위원이며, 야당인 번영정의당(PKS) 소속의 아니스 비아르와띠(Anis Byarwati) 의원은 조코위의 최근 조세사면 제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인니 4 월 연간 수출실적, 농업부문 수출 증가에 힘입어 대폭 증가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발표에 따르면 지난 4 월 수출실적이 전년 같은 기간대비 51.94% 증가하였으며, 전월대비 0.69% 성장하였다고 밝혔다.

수하리안토(Suhariyanto) 통계청장은 4 월 농업부문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98%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지난 3 월 농업 부문의 급증으로 전월 대비 14.55% 감소하였다.

이는 새장, 약초, 향신료, 커피, 과일등의 수출 감소에 기인하였으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농산품은 약초, 향신료, 흑단 및 정향이라고 언급했다.

BPS 청장은 4 월 제조업 수출은 전월대비 0.69%, 전년 동기 누적 대비 52.65% 증가했으며, 광업분야 수출은 전월대비 2.33%, 전년 동기 누적 대비 47.02% 증가하여 인도네시아 제조업 수출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7 개 은행 자회사 디지털 전환하면서 디지털은행 경쟁 가열

자산 기준 인도네시아 최대 은행인 두 은행의 자회사를 포함한 7 개 소규모 은행이 디지털은행화 계획을 통보하면서 인도네시아 디지털금융업계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시가총액 최대 은행인 BCA 은행(Bank Central Asia)의 자회사인 Bank BCA Digital 이 10 일(현지시간) 디지털은행화 계획을 통보했다고 금융당국이 밝혔다.

또한 여신자산 규모로 국내 최대 은행인 BRI 은행의 자회사인 BRI 아그로니아가(BRI Agroniaga)도 디지털 은행으로 도약하는 과정에 있다고 금융감독원(OJK) 관계자는 밝혔다.

이 밖에도 네오커머스 은행, 캐피탈 은행, 하르다 인터네셔널 은행, QNB 인도네시아 은행, KEB 하나은행 등이 디지털은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 은행들은 은행업무 전반에 대하여 완전히 디지털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개발이 이루어졌으며, 금융감독원(OJK)은 디지털 은행을 위해 특별한 인허가를

발급하지 않았고 현재 은행업 허가는 상업 은행과 지방 은행 두 가지 유형만 있다고 국제 은행 담당임원 토니씨는 말했다.

오히려 디지털 비즈니스 모델, 즉 모바일 앱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사무실 지점을 확장하는 대신 디지털 플랫폼으로 고객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은행들의 몫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들은 주기적인 보고서를 통해 OJK 에 그들의 사업모델의 변화를 알려야 한다. OJK 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은행들이 고객에게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소 자본금 등 몇 가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니는 디지털은행의 전환이 완료되면 BTPN 은행의 제니우스(Jenius), KB 부코핀은행의 웨이크(Wokee), DBS 은행이 소유한 디지뱅크(Digibank), UOB 은행의 TMRW, 자고은행의 자고(Jago), 핀텍 에코시스템의 고투(GoTo)가 기존 디지털 은행에 가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고은행(Bank Jago)의 주가는 지난 해 1,212% 상승해 시가총액이 177 조 루피아로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 7 위, 소비재 대기업인 유니레버 인도네시아(PT Unilever Indonesia)와 자동차그룹 아스트라 인터내셔널(PT Astra International)을 바짝 뒤따르고 있다.

MNC 은행 소유인 Motion Banking 과 Aladin Syariah 은행의 Aladin 과 같은 다른 은행들도 디지털 은행이 되려는 계획을 공개하였다. 특히 모션뱅크는 4 월에 디지털 서비스 제공 허가를 얻어 현재 모기업인 MNC 그룹의 미디어 생태계 내에서 3 천만 고객에게 디지털 뱅킹 서비스를 제공할겠다는 계획이다.